

# 더 크고 더 강한 광주 스마트 메가시티 박차

민선 7기 광주시는 현대차의 첫 경형 SUV '캐스퍼'로 대표되는 광주형 일자리와 국가 대표 인공지능 중심도시 도약 등 국내 최초·유일·최대라는 타이틀이 붙은 성과만 94개에 이르고, 지역 미래 성장동력이 되는 국책사업을 184개나 유치했다. 이 같은 성과 덕분에 지난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매달 출생아 수 증가'라는 '출산 기적'도 이뤄졌다.

아쉬움도 있다. 광주의 부정적 이미지 중 하나로 재미없는 도시 '노점 도시'라는 말이 꼬리표처럼 붙어있고, 진척 없는 군 공항 이전사업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에 따른 송정역세권 개발 등 일부 현안은 여전히 속제로 남았다.

지역사회에선 수도권·영남권과의 치열한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광주·전남 사·도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민선 8기를 여는 2022년 새해에는 어느 지역도 따라올 수 없는 '더 크고 강한 광주'의 기틀을 다지는 해로 삼겠다는 각오를 드러내고 있다.

광주시의 100년 미래를 책임지고,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4대 시정 키워드를 들여다본다.

◇'더 크고 더 강한 광주'...해법은 메가시티 조성=인구감소가 뚜렷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형은 수도권과 부·울·경, 충청권, 강원권 등 '메가시티'의 경쟁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방 자치단체별로 인건 생활권을 묶어 수도권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별 통합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큰 틀에선 사·도 통합을 통한 메가시티 조성에 공감하고, 그 첫 시도로 올해부터 광주와 인접한 전남 5개 시·군(나주, 화순, 담양, 함평, 장성)을 단일경제권으로 인공지능 기반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구성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시는 자동차·에너지·첨단의료·문화콘텐츠 등 미래 신산업 공동육성을 통해 광주와 5개 시·군 인구를 현 173만명에서 200만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포부다.

또 광주전과 영산강 물길 따라 광주·장성·담양·화순·나주·영암·목포를 연결하는 광역 경제·생태·역사·문화·관광벨트를 조성 계획도 내놨다.

이를 통해 민선 8기에는 광주·전남이 상상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대통합의 성과를 내어낸 수도권 등과 경쟁력을 갖추 수 있을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사·도 통합의 물꼬가 트인다면 다음 정부에서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되도록 힘을 모으고,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 100년 미래 책임... '그린·스마트·편 시티' =광주시의 미래 시정 방향 중 한 축은 '그린·스마트·편 시티' 조성이다. 광주시는 특히 앞으로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선 기후 위기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일찌감치 '그린시티'를 전면에 내세우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친환경 청정 녹색도시,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기후안심도시, 친환경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는 녹색산업도시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광주시는 정부와 유력연합 국가보다 5년이나 빠른 2045년까지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실현하겠다는 계획 수립·발표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만 그린시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대규모 예산 투입과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등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광주시의 중단 없는 추진 의지와 광주시민은 물론 지역사회의 협조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 시티'는 광주의 50년, 100년 미래를 책임질 인공지능 기반 최첨단 도시 구축 사업으로, 그린시티, 편 시티 조성과 맞닿아 있다.

'편 시티'는 광주시민과 외지인 모두 광주에서 편하게 쇼핑하고, 무등산에 올라 추억을 만들고, 문화예술과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광주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있는 데 마도시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청년이 돌아오는 광주...양질의 일자리=광주는 민선 7

기 들어 '광주형 일자리'를 통한 자동차 생산공장(GGM)가 동 등으로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서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미래 희망인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선 더 많은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2의 GGM 유치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규모 기업유치 사업이 이어져야 한다는 게 지역사회의 바람이다.

광주시도 자동차, 가전, 의료, 에너지 등 주력산업에 인공 지능을 입혀 미래산업 메카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또 민선 7기 성과 중 하나인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대형 기업 유치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또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하고 함께 청년이 살기 좋은 생활 여건 조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상상력과 창의력이 뛰어난 청년이면, 배낭 하나 메고 광주에 와서 사업하고 성공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청년이 내 집 마련하는 데 삶을 소비하지 않고 평생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광주형 평생주택'과 '광주형 누구나 집' 등 청년 맞춤형 주택정책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전남 5개 시·군과 단일경제권 구성 그린·스마트·편 시티 조성에 집중 일자리 만들어 청년 돌아오는 광주



광주시 북구 옹동부지에서 열린 국가 인공지능 집적단지 착공식.

◇민선 7기 대규모 성과 사업...중단 없이 추진=민선 8기 광주시가 미래 대도약에 성공하기 위해선 민선 7기의 핵심 성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력 있게 이어가야 한다는 게 자치행정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이다. 과거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 등으로 정권이 바뀔 경우 성공한 기존 사업마저 모두 부정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민선 7기 주요 성과를 10가지로 압축하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통한 23년 만의 국내 자동차 공장 건설 ▲인공지능 대표도시 도약 ▲2021년 매달 출생아 수 증가 ▲정부, 유력연합(EU) 국가보다 5년 이른 2045년까지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 실현 추진 ▲상무 소각장 도서관 변신 등 품격 있는 문화도시 기반 확충 ▲도시철도 2호선 착공과 달빛고속철도 국가계획 반영 등 교통 인프라 확대 ▲광주상생카드와 공공 배달앱 도입, 쿠팡 물류센터 유치, 광주역·송정역·상무지구 개발 등 경제 활성화 ▲효율적인 코로나19 대응 ▲민주·인권 대표 도시 위상 제고 ▲국비 3조원 시대 개막 등이다.

이중 광주시장은 "광주가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길이 되고 있다. 다음 세대에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를 물려주려면 힘들이든 혁신의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된다"며 "우리 세대가 나무를 심으면 다음 세대가 그늘을 즐길 수 있다. 올해는 시민과 힘을 합쳐 임인년 새해에 좋은 일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천상운집(千祥雲集)의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전남대 개혁

# 남해안 시대 앞당겨 신해양 관광 수도로

민선 7기 전남도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은 공항, 항만,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의 확충이었다. 기업이나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거점 형성 등에 있어 필수적인 기반시설이 열악한 전남의 경쟁력은 뒤쳐질 수밖에 없었다. 전남은 인구·자원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자리하고 있는데다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이 가장 늦게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반시설 획기적인 개선 성과=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2022년 사회기반시설(SOC) 분야 국비 1조5466억원 확보를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전남도 총 국비 확보액의 18.4%의 비중으로, 지난해(1조3365억원)보다 2101억원(15.7%) 증액된 것이다. SOC 분야에서는 ▲전라선 고속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등 국가계획 반영 ▲신안 압해-목포울도달리도-해남화원 간 연륙연도교 착공 ▲여수-남해 해저터널, 신안비금-암태 연도교 예타 통과 등 다도해 선사인쇄를 완성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영남권, 충청권에 비하면 미흡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수도권에서 광주 및 전남 각 시·군, 광주에서 전남 각 시·군, 광주 및 전남 각 시·군에서 영남권 중심도시 간 이

## 사회기반시설 확충 국비 사상 최다 에너지 대전환의 글로벌 거점 조성 인구감소지역 특례지원제도 등 필요



전남은 무안국제공항을 명실상부한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해 지역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 방침이다.

동시간을 타 지역과 동등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 투자 감소, 일자리 부족,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해 사람과 물자, 기업이 집적할 기반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반시설을 갖춰가면서 전남의 가장 큰 강점인 천혜의 자연을 이용한 관광산업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 섬, 갯벌, 숲 등 관광자원에 접근성과 함께 편의성이 향상된다면 세계 유수의 관광지 경쟁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간이 주도할 경우 난개발이나 자연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은 정부가 주도해 계획적이며 지속가능하게 개발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산업 등 신산업과 화학·철강 기존산업의 융복합=한국에너지공단이라는 세계 유수의 대학을 품어 안은 전남이 이를 보완할 초강력레이저연구소 등 연구개발시설들을 유치해 인재를 끌어모으고,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대표되는 지역 자원, 농수축산업이나 화학·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과 융복합을 시도해 산업 경쟁력도 향상시켜야 한다. 8.2GW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면서 그로 인한 이익을 지역민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정착시켜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지난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및 정부 지원 확보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48조원 투자협약 ▲NHN오라클 데이터센터 유치 ▲민선7기 900개 기업 22조원 투자 유치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

췌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전남의 가장 큰 강점인 농수축산업과 AI(인공지능), 4차 산업과의 결합을 촉진시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과 가공·유통 혁신 등 6차 산업화를 통해 부가가치도 높여야 한다. 농어촌이 지역 기업,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고품질의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도시민의 귀농·귀어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다. 또 농업과 수산업은 국민 먹거리로 책임지는 기초산업이라는 점에서 종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도 보다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 ▲남도장터 브랜드대상 4관왕 연매출 500억원 달성 ▲어촌뉴딜300, 농촌협약 등 농어촌 생활SOC 전국 최다 ▲한국섬진흥원 개원 등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농어인 소득 증대에 집중했다.

◇관광·도민 행복·국제행사 등 각 분야에서도 진전=관광 문화 분야에서는 ▲전남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안 퍼플섬 유엔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 ▲목포 장좌도여수 켈리리파크 착공 ▲해남 오시아노 리조트호텔 국비 확보 ▲신안 자은 해양관광단지 개장 ▲전남 도립미술관 개관 ▲남도병역역사박물관 건립 승인 등 세계적 관광문화예술향플레어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도민행복 분야에서는 ▲복지기동대, 재난현장긴급지원봉사단 운영 ▲전국 최초 섬주민 전원여객선 운영 ▲도민 안전보험 무료제공 ▲전남 사랑도민증 발급 ▲전국 최초 초등학생 우수 무상급식 시행 ▲도단위 최초 결혼축하금 지급 ▲대학 졸업생 '힘내라 희망 장학금' 지급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시행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등 전남 행복시대를 실현하고 있다. 국제행사 분야에서는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와 국제농업박람회, 제1회 김대중평화회의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행사로 개최했고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국비를 확보했으며 ▲2026 여수세계박람회는 국제행사 승인을 받았다.

◇'옴통 전남 미래 전략', 국책 사업 반영에 최선=전남도는 이 같은 미래 필수 사업을 총괄해 최근 '옴통 전남 미래 전략'을 수립했다. 전남의 미래 비전을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전남'으로 정하고, '에너지 대전환의 글로벌 거점',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 '대한민국 맛, 멋 글로벌 No.1', '신해안시대 한반도 중심축' 등을 목표로 했다.

8대 전략에 따라 핵심과제 34개, 지역발전과제 26개, 제도 개선 9개 등 69개 과제를 발굴해 그 비용을 정부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비 66조1359억원, 민자 10조8229억원, 지방비 4조7881억원 등 81조7469억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투입해야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과제는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 ▲초강력 레이저연구소 건설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조성 ▲인공태양광핵융합연구소 설립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국가첨단의료융합단지 지정 ▲국가 첨단 농업 융복합단지 구축 ▲환경해운 국가철도망 완성 ▲광주·전남 광역 고속교통망 구축 ▲한태평양시대 관문,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건설 ▲무안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이 있다.

과제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 개선이다. 국가가 '압축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균형 발전이 초래됐다는 점에서 전남으로 대표되는 쇠퇴지역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남도는 이에 인구감소지역 특례지원제도 마련, 국가 연구개발사업 선정 시 지역균형발전 지표 반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농어민공익수당 국가정책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개편 등 9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옴통전남 미래전략이 차기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면 전남의 미래 100년을 밝혀줄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도민의 뜻을 한데 모은 옴통전남 미래전략이 대선공약 및 차기정부 국정과제로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광산구 빛그린산업단지 내 광주글로벌모터스 완성차 공장에서 '광주형 일자리' 양산차 캐스퍼가 출고되고 있다.



전남은 미래 산업과 화학·철강 등 기존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시너지를 높이는 프로젝트를 준비중이다.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야경.